

절대강자 KIA 8게임차 1위…2~7위는 ‘대혼전’



내일 후반기 레이스 시작

나흘간의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끝낸 프로야구 KBO리그가 18일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한다.

10개 구단은 이미 전반기에 전체 일정(720경기)의 59%인 425경기를 치렀다.

후반기 경기 수가 전반기보다 적은 터라 포스트시즌 출전을 노리는 팀들은 매 경기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다.

전반기는 절대 강자 KIA 타이거즈와 2위 NC 다이노스를 비롯한 6개 팀의 중위권 대혼전, 그리고 약팀 3개 구단의 1강 6중 3구 구도로 끝났다.

10개 구단 전체 일정 59% 소화…‘가을잔치’ 총력

KIA, 후반기에도 신들린 공격력 지속 여부 관심

3승 더해 60승 땀 정규 시즌 우승 확률 76.9%

KIA는 투타의 완벽한 밸런스를 앞세워 57승 28패를 거두며 2위 NC를 8경기 차로 밀어내고 단독 1위를 질주했다.

4월 12일 선두로 치고 나간 후 3개월 이상 순위표 맨 윗자리를 빼앗기지 않았고, 10승~50승까지 모두 선착해 한국시리즈 직행 가능성을 높였다.

50승을 가장 먼저 돌파한 팀의 정규시즌 우승 확률은 73.1%(26차례 중 19번)이고, 2012년부터 2016년에는 5시즌 연속 50승을 선점한 팀이 정규시즌 1위를 차지했다. 곧 3승을 보태 60승마져 선착하면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76.9%(26번 중 20번)로 높아진다.

‘판타스틱 4’라는 막강한 4명의 선발 투수와 공격력을 앞세워 NC를 9경기 차로 밀어내고 지난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두산 베어스(93승 1무 50패)와 올해 KIA의 행보가 흡사하다.

KIA의 승패 차는 벌써 +29다.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의 신들린 공격력으로 상대 팀 마운드를 초토화한 기세를 후반기에도 이어간다면 무섭게 승수를 쌓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2위 NC부터 7위 롯데 자이언츠는 8경기 내에서 대혼전을 벌일 참이다.

6개 팀은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오는 토종·외국인 선수들이 이 어지러운 싸움에 마집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

NC 에이스 제프 맨섭은 팔꿈치 통증으로 두 달 가까이 재활을 하다가 전반기 막판 복귀했다. 옆구리 통증을 치료 중인 외국인 타자 재비어 스크러스가 후반기에 가세하면 NC는 투타에서 완전체를 구성한다.

5위로 내려앉은 두산은 투수의 공에 맞아 뼈를 다친 주전 포수 양의지와 외야수 민병현의 합류로 공격에서 활기를 얻을 참이다.

오른쪽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이달 초에야 본격적으로 1군에서 공을 던진 우완 투수 마이클 보우덴이 힘을 내면 마운드에도 이어간다면 무섭게 승수를 쌓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6위 LG 트윈스도 왼쪽 발목을 다쳐 한

달 이상 빠진 외국인 주포 루이스 히메네스와 오른쪽 어깨 통증을 털어낸 마무리 임정우의 합류를 학수고대한다.

롯데는 전반기 마지막 날인 13일 ‘린동원’ 조시 린드블럼의 복귀 소식을 알려 팬들의 환호를 끌어냈다. 린드블럼은 2015~2016년 롯데에서 23승(24패)을 거뒀다. 퇴출한 닉 에디튼보다 한국을 잘 알고 구위도 더 낫기에 선발진 강화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롯데는 예상한다.

8위에 처져 중위권 도약에 안간힘을 쓰는 한화 이글스는 총 33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수 카를로스 비야누에바(팔꿈치), 알렉시 오간도(허리)의 후반기 팀 합류 시점부터 ‘진돗개’ 야구의 투지를 제대로 발휘할 전망이다.

장정석 신임 감독 체제에서도 안정적으로 4위를 달리는 넥센 히어로즈는 팔꿈치 통증을 이겨낸 사이드암 한현희의 후반기

가세에 기대를 건다.

올해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들의 해비도 포스트시즌(PS) 진출 여부에 갈릴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리빌딩을 거쳐 올해 팀을 최강으로 끌어올린 ‘형님 리더십’의 김기태 KIA 감독은 계속 호랑이 군단을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김 감독 재임 기간 팀 성적은 꾸준히 올랐고, 배테랑과 젊은 선수들의 조화도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다.

양상문 LG 감독, 조원우 롯데 감독이 재계약과 가을 잔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그야말로 매 경기 전력을 쏟아부어 5위 이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퇴진한 김성근 전 감독의 뒤를 이어 한화를 이끄는 이상근 감독 대행의 정식 감독 승격도 포스트시즌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연합뉴스

SK 최정 올스타전 MVP 영예

전반기를 홈런 1위(31개)로 마친 최정(30·SK 와이번스)이 올스타전에서도 홈런 축포를 쏘아 올렸다.

최정은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치며 3타수 2안타 3타점 3득점 2볼넷으로 활약해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누렸다.

최정은 KBO 기자단 투표에서 총 53표 중 40표를 얻어 8표를 받은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를 제쳤다.

6번째 올스타전에서 거머쥔 생애 첫 올스타전 MVP다. SK 소속 선수가 미스터 올스타로 뽑힌 것도 처음이다.

2008년 한국시리즈 MVP에 올랐던 최정은 이종범, 타이론 우즈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시리즈 MVP와 올스타전 MVP를 수상한 선수가 됐다.

드림 올스타 3루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최정은 첫 타석부터 홈런포를 가동했다.

1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나눔 올스타 선발 양현종(KIA 타이거즈)의 초구 시속 131km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최정이 올스타전에서 친 첫 홈런이었다.

드림 올스타는 13-8로 승리했고, 최정의 개인 첫 올스타전 홈런은 이날의 결승타가 됐다. 미스터 올스타 등극을 위해선,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최정은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치며



1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미스터 올스타로 뽑힌 SK 최정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 올스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는 3-0으로 앞선 3회 초 무사 2루에서 배영수의 시속 121km 포크볼을 공략해 왼쪽 담을 넘겼다.

최정은 경기 뒤 “홈런 두 개를 치니까, 동료들이 ‘MVP는 네 차지다’라고 말하더라”며 “경기가 진행될수록 ‘내가 정말 MVP가 되는 걸까’라고 기대했는데 9회에 나눔 올스타가 추격해서 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림 올스타는 승리했고, 최정은 기대대로 MVP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대 여자농구, 대학농구 2연패

광주대학교 여자 농구부가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광주대는 14일 전남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3회 MBC배 용인대와의 여대부 결승전에서 75대 60으로 승리했다.

〈사진〉 이날 승리로 광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 및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또 대학리그를 포함해 MBC배까지 올 시즌 16연승을 기록, 최강 전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광주대 홍채린은 대회 최우수선수상, 강유림(이상 2년)은 득점상과 수비상, 김진희(3년)는 어시스트상, 국선경 감독은 지도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앞선 16강전부터 단국대, 극동대, 수원대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오른 광주대

는 이날 용인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1쿼터부터 23대 15로 리드하며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다. 2쿼터에서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44대 28로 점수를 벌리는 등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이후 4쿼터에 3점슛 3개를 쏟아부으며 15점 차 대승을 거뒀다.

강유림이 25득점 9리바운드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장지은(4년)은 3점슛 4개를 포함해 17득점, 홍채린은 15득점 8리바운드 5도움으로 우승에 기여했다.

국선경 감독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펼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면서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챔피언전을 잘 준비해 정규리그에 이어 통합 우승을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

여자 테니스 무구루사 시대…윌블던 우승

비너스 윌리엄스 2-0 제압

2년 전 세리나에 겨 준우승

비너스, 9년만에 우승 무산



가르비네 무구루사에게 포인트를 잃은 뒤 코트를 굽어보고 있는 비너스 윌리엄스(11위·미국). /연합뉴스



가르비네 무구루사(15위·스페인)가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윌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윌블던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비너스 윌리엄스(11위·미국)를 꺾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머리에 이고 기뻐하고 있다. 무구루사는 이날 승리로 윌블던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리며 1994년 콘치타 마르티네스 이후 23년 만에 윌블던 여자단식을 제패한 스페인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가르비네 무구루사(15위·스페인)가 윌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3천160만 파운드·약 463억원) 여자단식 챔피언이 됐다.

무구루사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윌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비너스 윌리엄스(11위·미국)를 2-0(7-5 6-0)으로 물리쳤다. 지난해 프랑스오픈에 이어 메이저 대회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무구루사는 우승 상금 220만 파운드(3294천만원)를 받았다.

무구루사는 또 2015년 이 대회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2년 만에 털어내며 윌블던에서는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2년 전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4위·미국)에게 패했던 무구루사는 올해 결승에서는 세리나의 언니 비너스를 잡고 윌블

던 왕좌에 앉았다.

반면 메이저 대회 여자단식 최고령 우승에 도전장을 던진 윌리엄스는 준우승에 머물면서 2008년 이후 9년 만에 이 대회 패권 탈환에 실패했다.

1980년 6월생으로 만 37세 1개월인 윌리엄스는 이날 이겼더라면 동생 세리나가 올해 1월 호주오픈을 제패하며 세운 그랜드슬램 여자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35세 4개월)을 바꿀 수 있었다.

1세트 게임스코어 4-4까지 팽팽하던 흐름에서 윌리엄스가 먼저 앞서 나갈 기회를 잡았다.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 5-4를 만든 윌리엄스는 이어진 무구루사의 서브 게임에서 15-40으로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다.

여기서 한 포인트만 따냈더라면 1세트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윌리엄스는 이어 무려 19차례 랠리를 주고받은 끝에 무구루사에게 포인트를 내줘 30-40이 됐다.

한숨을 돌린 무구루사는 곧바로 서비스 포인트를 따내며 듀스를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켰다.

기회를 놓친 윌리엄스는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당해 오히려 5-6이 됐고,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무구루사가 일방적으로 윌리엄스를 몰아붙였다.

1세트를 7-5로 승리한 무구루사는 2세트에서는 윌리엄스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6-0으로 완승을 거뒀다.

무구루사는 1994년 콘치타 마르티네스 이후 23년 만에 윌블던 여자단식을 제패한 스페인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체육회,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선정

각각 1억 이상 사업비 교부 받아…학교체육 발전 탄력

광주와 전남 양 시·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약 1억여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지역 초·중·고 학교체육 발전에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 3월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2017 기초종목(육상·수영·체조) 육성 및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결과 광주시체육회는 1억2천4백만원을, 전남도체육회

는 1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교부받았다.

기초종목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계획된 이 사업은 전국대비 학생선수등록 비율과 각종 전국체육대회 참가비율을 고려하고 개인용 훈련장비보다는 단체용 훈련장비를 우선으로 현대적 장비

구매를 필요로 하는 운동부를 중점으로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총 8개 종목 15개 학교가 선정됐다.

기초종목 육성 사업에 육상 등 2개 종목 빙고울초 등 3개 학교가 약 2천4백만원을 지원받게 됐고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에 태권도 등 6개 종목 첨단고 등 12개 학교가 선정돼 7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1억원의 예산으로 학생선수들이 필요한 각종 훈련

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12종목에 16개의 학교 운동부가 지원을 받게된 전남도체육회는 기초종목 육성사업에는 광양칠성초와 광양하이텍고 육상팀과 여수한려초와 여수문수중 수영팀, 영광중앙초 체조팀 등 5개 운동부가 선정됐다.

여수충무고와 여수여문초 물리팀, 전남조리과학고, 곡성중 불림팀, 순천향림중 사격팀, 여수무선중 세일링팀, 여수공업고 씨름팀, 순천공업고 유도팀, 전남미용고 자전거팀, 해남공업고 펜싱팀, 무안고 핸드볼팀 등 11개 운동부가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 김진수기자 jeans@